

홍천의바른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0년 1월 (제68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자월스님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신년사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홍천 만들겠다”

■ 허필홍 홍천군수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수 허필홍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해를 아쉬움 속에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충만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기해년 한해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노인지도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4
%로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모
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홍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공동주거생활 시설지원 등 노인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어르신들께서 평생 동안 닦고 쌓아올린 경험과 능력을 발
휘하셔서 우리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2020년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라며, 어르신 모두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의회가 군민 현안 해결하는 중심적 역할 최선”

■ 김재근 홍천군의회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보내고 대망의 2020년 희망찬 경
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은 하얀 쥐띠의 해로 번성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군민 여러
분의 가정과 홍천군의 번성과 번영을 가져오는 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제8대 홍천군의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
도록 아낌없이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어수선한 국내정세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많은 어
려움과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경제도
어려웠지만 군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각오로 7만군민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능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출범한 저희 8대 의회가 어느덧
임기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며 지역사

회와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하여
“풍요로운 행복창조 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희망”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현안의 해결은 군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천군의의회가 중심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의회가 “소신 있는 의정,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면서,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챙기고 홍천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생활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9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희망찬 홍천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군민 여
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 소망하시는 큰 꿈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ONTENTS



02 - 신년사

03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04 - 경로당 탐방 시리즈

05 - 스포츠 및 행사 · 우리 마을

06 - 인터뷰

07 - 자원봉사단체

08 -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신년사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 사라져도 하늘이듯이 우리도 이와 같아야”

■ **퇴우 정**님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생이로천난로(人生易老天難老)라 인생은 쉽게 늙지만 하늘은 늙지 않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또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남긴 세월의 흔적은 미처 치울 새도 없이 다가올 시간들을 준비해야 하는 분주한 계절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생주이멸 하는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를 떠올려 봅시다. 빈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잠시 일어났다 사

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를 넓혀 보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일 년이 금세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늘 같은 하늘이듯이 우리 마음의 자리도 그와 같습니다. 오롯이 깨어 있는 마음으로 마음자리를 비출 뿐입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고 안 먹고 아무 관계할 것이 없게 됩니다. 서산스님께서서는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세지 않는다네”라고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이팔청춘의 마음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이 건강하시고 힘이 되시기를 오대산에서 기원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군의원으로 군민 성원 보답하겠습니다”

■ **신영재** 강원도의회 의원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 하여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군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 속에 일하는 뜻깊은 한 해였으며,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좋은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젠

힘들었던 일들을 뒤로하고 올해는 여러분께서 흘리신 땀이 가족과 우리지역을 위한 좋은 결실이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많은 꿈과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얻고, 소외됨 없는 복지를 누리며,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다부진 각오로 힘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행사 개최로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관 역점”

■ **방정기**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홍천에서 거주하시는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을 두루 성취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도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인생과 사회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노년」을 비전으로,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상담활동과 사례관리, 평생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신체·경제·정서

적인 문제들을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 해에도 지역사회와 어르신 모두가 이용하는 좋은 노인복지관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해가 되기를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과 직원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실 있고 지역사회 꼭 필요한 복지관 운영 약속”

■ **자월** 홍천군노인복지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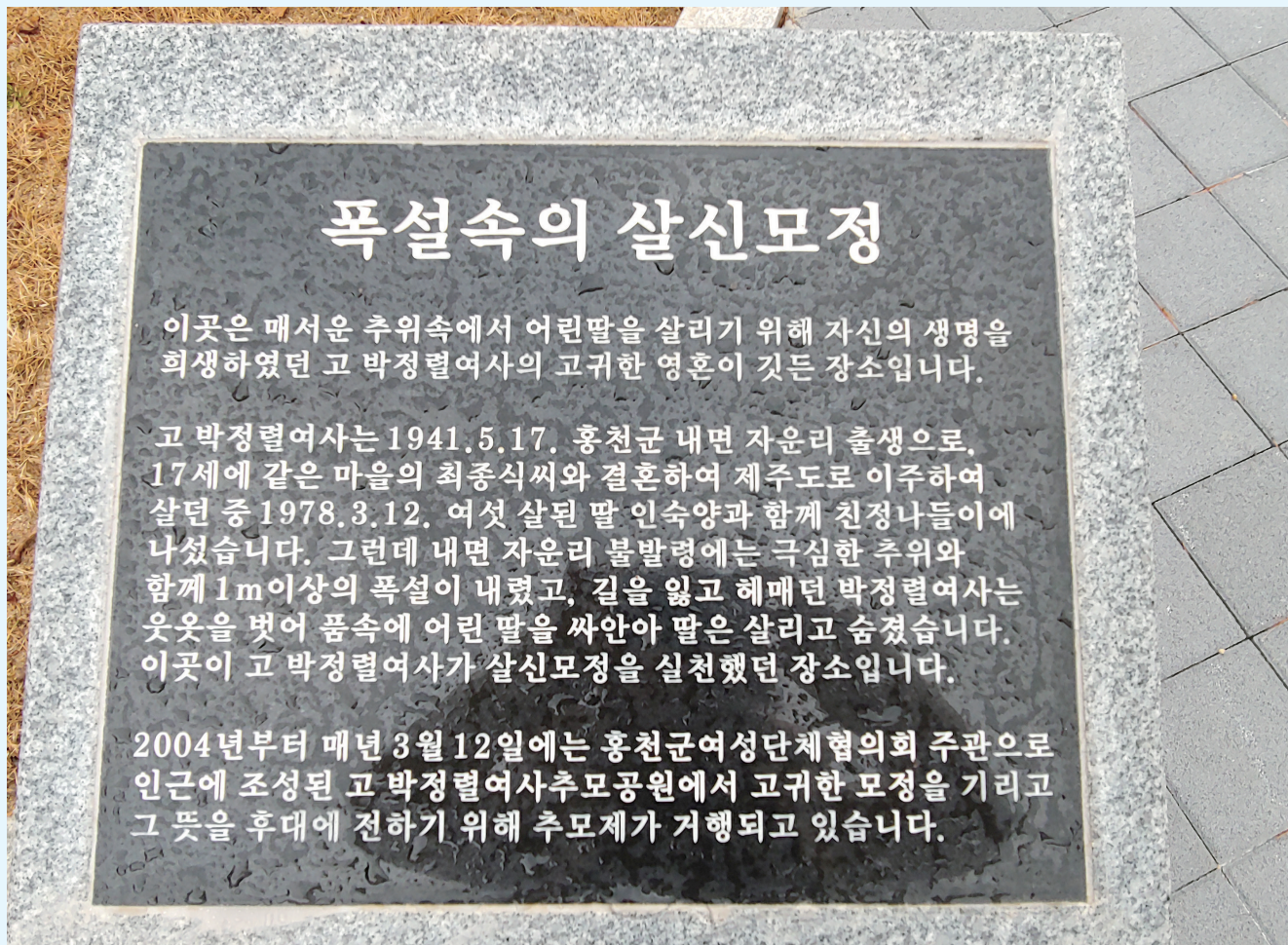
희망차고 행복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셨던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별 탈 없이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해 주셨던 감사분들과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실 있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

록 많은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법구경에 보면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비추어 보면 2020년은 2019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2021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되는 한해, 뒤돌아 아쉬움을 생각하기 보다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풍성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오며,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와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옆 자리의 사람을 경쟁과 대립의 상대가 아닌 함께 호흡하고 발 맞추어 나갈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와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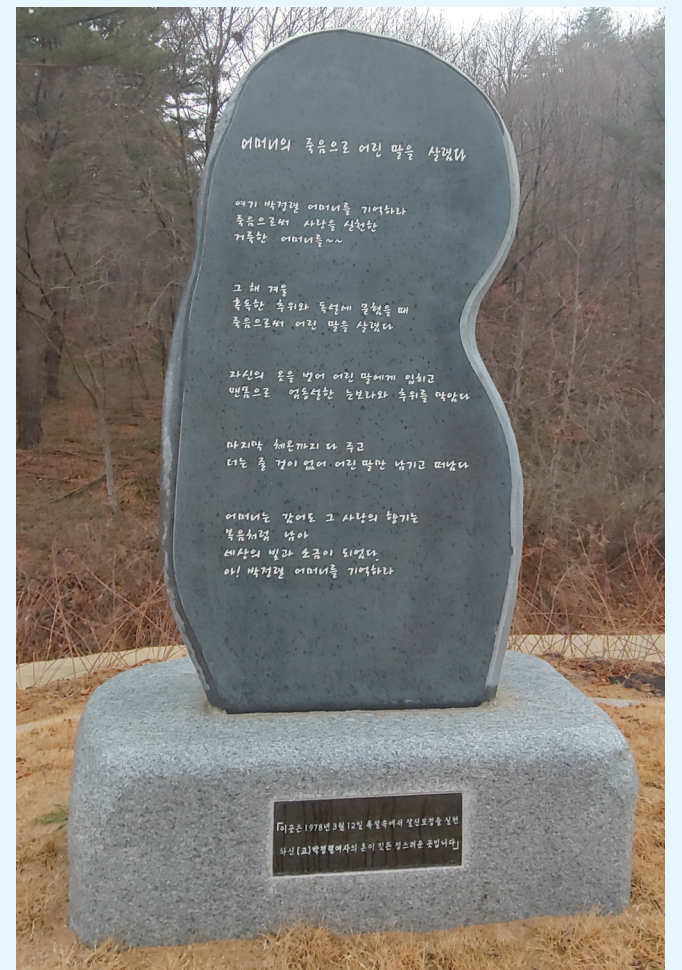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내면 자운리 불발령 고개

폭설에 길 잃자 어린 딸 품속에 감싸 살린 기적의 '살신모정'



◇홍천군 내면 자운리 불발령고개에 조성된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에 설치된 표지석에 폭설속의 살신모정이 소개돼 있다.



◇홍천문인협회 회장인 김정현 시인의 추모시를 새긴 박정열 여사 위령비

결혼후 제주도서 살다 6살 딸과 친정 나들이중 참변 추모공원 등 조성 매년 추모제 거행 고귀한 희생 기려

모정이 살린 어린 목숨 귀감

1978년 3월 12일, 이곳 불발령에서 1미터이상의 눈이 내려 길을 잃고 쓰러진 채, 극한 추위에도 옷을 벗어 어린 딸을 덮어 품속에 감싸 안아 살리고 자신은 숨을 거둔 여인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열....

故 박정열 여사는 1941년 내면 자운리 생으로 결혼하여 제주도에서 살다가 친정 방문을 위해 6살된 딸과 고향 불발령을 지나다가 폭설 속에서 어린 딸을 품에 안아 지켜내고 어머니란 이름만 남긴 채 홀로 떠나갔다.

2013년 홍천군과 군여성단체협의회는 故박정열 여사 추모공원을 세워 추모비와 추모비 건립문과 위령탑·박정열 여사 동상을 세워 헌사를 담은 위령비를 세웠다.

또한 군여성단체협의회는 불발령 살신모정의 자리에 故 박정열 여사의 아름다운 모정의 위대함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교육의 장으로 널리 알리고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9월 표지석을 세웠다.

홍천문인협회 회장 김정현 시인은 표지석에 이렇게 글을 써서 헌사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어린 딸을 살렸다

여기 박정열 어머니를 기억하라
죽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한
거룩한 어머니를.....

그 해 겨울
혹독한 추위와 폭설에 묻혔을 때
죽음으로써 어린 딸을 살렸다

자신의 옷을 벗어 어린 딸에게 입히고
맨몸으로 엄동설한 눈보라와 추위를 막았다

마지막 체온까지 다 주고
더는 줄 것이 없어 어린 딸만 남기고 떠났다

어머니는 갔어도 그 사랑의 향기는
복음처럼 남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아! 박정열 어머니를 기억하라

겨울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리는 오후, 불발령 험준한 고갯길에 외로이 서 있는 표지석과 제단 사이로 허허로운 바람 한줄기 옷깃을 스쳐간다.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덩그러니 표지석이 깊어가는 겨울바람에 더욱 쓸쓸해 보였다.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곳 불발령 중턱에 있는 故 박정열 여사의 표지석에 머물러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알고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어머니는 갔어도 그 사랑의 향기는 복음처럼 남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

조하경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를 돌아보며

“어르신, 경로당 각종 민원, 애로사항 해결 못해 아쉬워”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다양한 홍천 이야기 발굴 보람
마을 자랑거리, 볼거리, 문화유적 소개 홍천 발전 일조

2019년 기해년 한 해를 밝히는 해가 솟아 오른 것이 엇그제 같은데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쌀쌀해 벌써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본 기자가 경로당 탐방 시리즈 취재를 하게 된 것도 작년 2월초부터였는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니 세월의 덧없음과 선배들의 60대에는 시간이 60km로 달려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2019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국가적으로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던 것 같다. 특히 강원도는 산불피해와 태풍피해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 우리지역 홍천은 큰 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작년에는 총 66일의 공유일이 지정되어 있었고 달라진 제도로는 노인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었고, 디지털 성범죄피해 지원 확대, 장병급식 혁신사업 전군 전부대 시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으로 인상, 아이 돌봄 서비스질 개선 이용 부담 완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청년구직자 6개월간 월50만원 지급, 종교인 소득종합 소득세 신고,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권역별 신규설치, 장애 등급제 폐지, 주요 돌봄 서비스 확대,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시 개별 소비세 감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새해 2020년에 달라지는 정부의 제도 중 복지분야를 파악해 보았다.

이는 복지산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독자, 특히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시행 개편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숫자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6개 돌봄제도로

- 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3)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 4) 단기가사 서비스
- 5)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 6) 지역사회지원 연계등의 서비스인데

기존의 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6개 서비스를 신청할수 없음은 물론이고 모든 서비스중에서 1가지만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호소된 바 이에 정부에서는 새해부터 위의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 안심 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취약자)
- 일반 돌봄군 (사회, 정신취약자, 월16시간 미만서비스)
- 중점 돌봄군 (신체취약자, 월16시간이상 서비스)
- 특화사업 대상군(우울, 운동형 노인)
-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안전지원(안전,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영양, 운동교육,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 기술설치, 일상생활지원(외출, 병원동행, 나들이, 영양식사관리, 청소)등을 진행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새해부터 진행될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홀로 일상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자가 2019년에 홍천군의 경로당 탐방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더듬어보면 각 마을의 경로당이 특별한 것이 없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 매달의 취재가 무미건조하고 틀에 박힌듯하여 4월(60회)부터 각 경로당 취재와 더불어 마을 소개 및 그 지역의 볼거리, 자랑거리, 문화재, 유적 등으로 확대하여 탐방취재를 하고 있음은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본 기자나 홍천실버신문이 해결사가 아닌데도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는 취재시마다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셔서 간혹 곤혹스럽기도 하고 해결할수 없음에 안스러움과 기자의 한계를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곤 한다.

이러한 각 마을 어르신들의 민원, 애로사항들을 기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의 애로 사항을 들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억눌린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각 마을 경로당의 요구 사항이 활자화 됨으로써 독자는 물론 관계자들도 알게 되어 각 경로당의 요청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개선, 해결되는데 본 경로당 탐방이 이바지했으면 한다.

작년 10월호 결론2리 경로당 기사에서 홍천읍에 사기 웅기 가마가 결론리, 송정리, 연봉리 등 3군데나 있었다는 증언과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산성터가 현재도 존재한다는 등의 증언은 작년

취재의 작은 성과라고 자평해 본다.

만약 홍천실버신문의 경로당 탐방이 없었다면 이런 증언을 해 주신 분들이 연세가 많아 홍천의 유산이며 향후 홍천 발전을 위해 이용, 발굴, 복원 될 수도 있는 것들이 그냥 잊혀지고 묻혀 졌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경로당 탐방의 필요성과 자긍심을 동시에 느껴본다.

또한 각 마을의 자랑거리, 볼거리, 문화유적들의 소개가 홍천을 알리고 홍천 관광사업과 궁극적으로 홍천인구 유입에 작으나마 일조를 한다면 이 또한 경로당 탐방의 결과물일 것이다.

한편 지난호에 실린 홍천 철비에 대해 이런 제언을 해본다.

홍천 철비는 조선시대것으로 통상의 비들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반해 철로 만들어져 그 희귀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유물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철로 만든 비가 300여기나 있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불과 40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홍천 철비는 1661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존하는 철비중 3번째로 빠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기자는 실물을 보기 위해 현재 이 철비가 보관되어 있다는 무궁화 공원내 향토사료관을 찾았으나 사료관이 리모델링 공사중이어서 보지 못하여 아쉬워하며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 가기로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홍천 토박이들한테 이 철비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이 철비를 아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선 홍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본보가 홍보하는 것이며 우리 홍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철비를 관계기관에서 좀더 면밀히 연구하고, 홍보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격상시키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이 철비를 군청 로비로 옮겨 전시하여 이 철비를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하면 이처럼 후대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킨다면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제언해 본다.

기자가 경로당 탐방 취재를 처음으로 시작 할 때는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나름 열정으로 가득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않았었는지 반성도 해보고 2020년 새해에는 좀더 짜임새 있고 알찬 정보를 독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더한층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 본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 본지 독자들께서 더욱 건강하고 각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각 마을의 경로당이 더욱 발전하기를 소원하면서 두서없는 글을 맺는다.

홍천 실버신문 독자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더욱 행복 하세요!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스포츠 및 행사

강원도 노인의날 어르신 한마당 축제

18개 시군 2,000여명 회원 참가 흥·열정 가득

제23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제11회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강원도와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회장 김완식) 흥천군지회(회장 이형주)가 주최·주관하여 2019년 10월 24일~2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흥천군 종합운동장에서 제23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제11회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높은 가을하늘 아래에서 18개 시·군 노인회 약 2,000여명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부포상 및 도지사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장 표창이 주워졌다. 강원도지사표창은 횡성군지회 지무진, 원주시지회 유종우·정영화, 동해시지회총무, 유진영 정족리회장, 한문자 교동부녀회장, 최춘지 갈마곡7리회장, 선옥동 청평2리회장, 김광수 원리2리회장, 장하영 인제군지회부회장, 흥남북인제군지회 부회장, 이야진큰말경로당을 상운사회장이영기, 영랑동회장 김정순, 흥천군노인복지관 실버기자 안태수, 영월지회부설노인대학 김태수 등이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청춘은 바로 지금, 펼쳐라 황금시대’ 주제

강원도 18개 시·군 한마당 축제가 대진표에 따라 궁 던지기, 지구를 굴러라, 공 이어받기, 팔봉산 쌓기, 인 바스켓볼 등 각 시·군 마다 조를 편성하여 강원도 노인들이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정정당당하게 멋진 경기를 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강원도 18개 시·군 노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 노인분들에 힘이고 하나로 화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1회 강원도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지난 10월 24-25일 흥천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합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한다.

제23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제11회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의 1박 2일 행사가 서서히 막을 내리며 어르신들의 한마당 축제에서 종합순위가 나와 1위에 속초시(회장 이종명) 2위 태백시(회장 이성택) 3위 춘천시(회장 이수홍) 4위 철원군(회장 장성운) 프로경영 부분에서는 우수상(회장 유종우) 준우승 동해시(회장 남경만) 3위 평창군(회장 김대성)이 응원상은 흥천군(회장 이형주) 정선군(회장 이근식)이 차지하였다.

소외받는 어르신 없도록 현실적인 정책 필요

정부와 지방자치체에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에 복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잘 보장 되어 있는 현실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니와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를 보면 더 많은 맞춤 복지가 절실히 요구되며 외롭고 우울한 하루하루 생활하는 분들이 주변에는 많이 계신 곳을 보며 일부는 위기적 상황이 아닌가 한다.



노인분들의 삶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어려운 환경에서 노출된 계층이 많다는 것 또한 쉽게 느껴지지 않으며 홀로 계신 부모님들을 폭행하는 비 인간적 사건 또한 사회적 보충망 없이는 방관하기만 하는 것은 어려운 사태일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 복지정책이 노인분들에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 김완식)은 끝으로 흥천군수와 흥천군노인회지회(회장 이형주) 그리고 협조를 아낌없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다시한번 인사와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 경자년에는 강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바라면서 2020년 제24회 강원도 노인의날과 제12회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하고 1박 2일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ever.com)



우리 마을 - 흥천군 화촌면 향기

“자연과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화촌으로 오세요”

박순자 화촌면장 인터뷰

화촌면은 흥천강 상류 지역으로 44번 국도와 56번 국도가 교차되어 동서고속도로로 동흥천IC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입니다. 11개 법정리와 18개 행정리로 인구 4,700여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농경지는 1,760ha로 논 55% 밭45%를 차지합니다.

주작목은 배이며 밭작물로는 찰옥수수, 감자, 고추, 인삼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 지역에는 더덕 등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구성포리와 풍천리는 잣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공작산과 군업강변 주름치강변 등 흥천군의 젖줄인 흥천강이 유유히 흐르는 천연관광 자원이 많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대진교 강변 인근 동키마마을 동키체험관에서는 당나귀타기체험, 당나귀 우유 수제비누 만들기 체험, 족욕체험등을 할 수 있는 동키허니랜드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맘껏 농촌 관광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풍천리에는 자연동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숲속의 동물나라, 알파카월드(ALPACA World)도 있습

니다. 남미의 지붕 에콰도르 안데스산맥 고운지에서 뛰어놀던 알파카들이 선한 눈망울로 맑고 깨끗한 화촌면의 푸른 숲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흥천의 숲속 동물나라입니다.

동물과의 교감은 일상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우울증과 같은 마음병을 치료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화촌면을 방문하여 행복한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 알파카월드 사장 허영철님은 알파카 월드 동물 나라를 찾는 이는 연간 20만명이라고 하며 동남아시아인이 주를 이루고 유럽 등 세계인이 봄,여름,가을에 특히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남미 안데스산에서 뛰어놀던 알파카는 세계인들이 흥천에 와서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 동키마을 사장 김도형님은 양,염소,돼지,토끼,고양이 등 체험을 위해 국내에서 가족단위로 많이 찾아와 정서적 교감을 느끼게 하며 방문객은 4-11월에 2



◇화촌면에 조성된 동키마을. 연 2만여명이 방문한다.



만명 가량이 찾아온다고 한다. 가족적 체험과 신기한 동물과의 교감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3. 풍천리 양수발전소

양수발전소는 공사기간이 7~10년이 소요되며 건설경비는 2조원이 든다고 한다.

흥천이 풍천리 발전소를 유지하고자 지자체장 군의원이 노력한 결과 찬성, 반대가 나와 2019.3월에 양수발전소 설명회가 흥천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원주민은 인간의 귀소본능인 풍천리를 떠날 수 없다고 하고 흥천주민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여 국세부로 하여금 허락을 받아 놓고 있다.



이광명 기자

초등학교때 입문... 판소리 발전·저변 확대가 꿈

홍천은 판소리 불모지... 공연후 박수갈채 큰 힘 소리 공부는 자신감 갖고 꾸준히 배우고 익혀야

안녕하세요? 김옥순 명창님, 저는 실버신문 기자 김정현입니다.

오래전부터 만나 뵈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정한이 서린 판소리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이번 특별히 명창님을 인터뷰하게 되어 기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순 명창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김옥순 명창님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통영시 육지면 원양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허문도 교장 선생님에게 만고강산 판소리를 배웠지요. 그 당시 황영철 담임선생님은 고전무용을 전공하여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두 선생님에게 판소리와 고전무용을 배워 제가 4학년 때 진주예술제에 출전하여 1등을 해 양찬우 시장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왜 명창이 되었나요?

어려서 허문도 교장 선생님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익히다 보니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경기민요, 판소리 등 우리 전통 민요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의 재능을 알아차리시고 키워주신 허문도 교장 선생님과 고전무용을 가르쳐 주신 황영철 담임선생님 그리고 지금의 판소리 진흥회 회장인 박양순 선생님을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 명창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꾸준히 지도를 받으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요.

- 지금 명창이 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족하고 있나요?

저는 판소리 명창이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무대에 올라 열연하고 있는 김옥순 명창.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홍천에 판소리를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행복하고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홍천은 판소리의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메신저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무대 공연 시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박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응원과 성원의 큰 힘이 성취감으로 또다시 공연의 동력을 얻곤 합니다.

-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한번 마음먹은 일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판소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신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항상 좋은 선생님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갖고 꾸준히 배우고 익히면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조상들의 멋과 가락이 담긴 판소리를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판소리의 보급과 저변확대가 잘 이루어져 저 역시 홍천의 인정받는 명창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홍천의 판소리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홍천에 메신저 역할과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실버신문 기자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옥순 명창의 뜻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다섯 바탕의 삼강오륜의 뜻을 가진 판소리의 제목을 실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춘양가 : 부위부강으로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 되고 부부의 사랑을 전개한다.

심청가 : 부위자강으로 자식은 아버지를 섬기며 효도함을 전개한다.

홍보가 : 형제유친으로 형제간에 친함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줌을 전개한다.

수궁가 : 군위신강 군신유의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개한다.

적벽가 : 봉우유신으로 벼와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줌을 전개한다.

김정현 기자



자원봉사단체 소개

심정문화교류회

“다문화가정 회원 각국 문화 교류하며 사회봉사 활동”



◇다문화가정이 주축인 심정문화교류회 회원들이 경로당을 찾아 발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효도라며 기뻐하실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월 1회 경로당 방문 발마사지, 치매 예방운동 자녀교육 어려움 많아... 교육 여건 조성 기대

가꾸다니 유우씨씨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 일본에서 서울로 유학왔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았다.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의 고향인 홍천 남면 시동리로 귀향했고 유우씨도 함께 홍천으로 온지 4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홍천의 다문화가정들과 함께 한일 심정문화교류회를 비롯하여 다문화교류회를 만들어 음식, 문화 등을 교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한국 치매 인식 개선 교육협회 강사로도 봉사하고 있다.

그녀를 만나서 차 한잔을 나누며 봉사활동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 교류와 봉사단체를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하여 -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를 교류한다는 의미가 컸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받은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혜택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

봉사내용

- 어르신 발 마사지

회원들 6-7명이 월 1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1인이 3명 정도를 마사지 해드리면 계신분 모두 해드리게 된다. 발을 씻겨 드린 후 로션을 발라서 지압을 하며 몸이 안좋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여 건강에 도움을 드린다.



- 치매예방운동

다문화 회원들중 치매 예방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많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시켜드리고 놀이를 통하여 같이 놀아 드린다.

- 그 외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식사 배식을 돕는다.

- 회원들 간 상호 친목

회원들은 바쁘게 살면서 짧은 시간을 내어 봉사

하므로 거의 시간이 없지만 봉사후 만나서 교제를 나눈다.

회비는 없으며 세계평화 여성연합 홍천지부에서 봉사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받는다.

- 보람을 느끼는 기쁨

장애인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발마사지를 해드리면 자녀들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효도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된다고 한다.

-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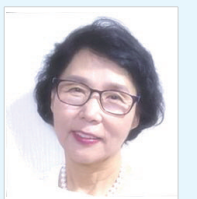
회원들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의 경우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 못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점은 서로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다.

- 바라는 점이나 희망이 있다면?

다문화가정들은 2세들의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 자녀(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친척도 없으므로 오고 갈 곳도 방문할 가정도 없으므로 교류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항상 이방인 같은 느낌과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한국의 일반 가정의 자녀들처럼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여건들이 갖춰졌으면 하고 꿈같은 희망을 가져 본다



김순화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인공지능(AI)이 사람이 하는 일 대신하는 시대온다****정형화된 사무직종 사라지고 과거 인기직종 퇴출
인공지능과 타협·협업해야 생존 가능한 시대 눈앞**

직업 즉, 우리들의 일자리에 관한 한 미래사회는 유토피아(utopia)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dystopia)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50 대 50이다.

1970년대를 살았던 우리로서 80년대나 90년대의 직업 세계를 그리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10년,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의사, 판검사, 변호사, 대기업 회사원, 교사 등은 인기 직업이었을 테고 과거와 같은 직업군이 열려 있으리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마지막 해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직업 세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직업들 대부분이 없어질 것이고(지금도 야금야금 없어지지만) 상상 못할 신종 직업들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10~20년 이내에 사라질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차 산업혁명 시기 기계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기계에 대하여 기계파괴운동, 즉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라는 극한 저항을 하였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우리는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났다. 로봇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AI)이 그것이다. 이들로 인해 인간은 앞으로 많

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 베네딕트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팀의 보고서 <고용의 미래:The future of employment>에 의하면 향후 10~20년 이내로 없어질 직업군 상위 목록이 열거되어있다.

우선 로봇으로 인해 텔레마케터, 바느질재단사, 화물 취급인, 스포츠 심판, 공장 단순 노동자, 운송업자, 시계 수리 및 조립원, 은행창구원, 판매 직원 등이다. 이들 직업군은 사실 정밀하고 기계적인 로봇이 훨씬 생산적이며 업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바리스타 로봇, 패스트푸드점의 로봇, 판매 로봇, 민원 챗봇 등의 서비스 로봇은 점점 더 사람들의 효율성을 능가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조금씩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중이다.

다음 빅데이터 기반의 기계 알고리즘으로 정형화된 사무직종 일을 해온 사람들은 장차 이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역시 같은 책의 리스트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의 심사 조사,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석가, 보험업자, 세무신고 대행자, 은행 신규계좌 개설 담당자, 증권사 일반 사무원, 각종 대출담당자 및 감정인, 구매담당자 등. 이들 직종도 일부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인간들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놈은 인공지능(AI)이다. 이미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스스로 학습할 줄 아는 이 인공지능은 소위 전문직종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최후 일자리카까지 넘보고 있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X-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 자료, MRI 의료 영상 이미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일반 전공의와 같은 놀라운 질병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의사 직종이라도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이들과 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금융업은 고급 전문직종이지만 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금융회사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미 주식거래는 알고리즘 매매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많은 증권사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증권 컨설턴트, 펀드매니저, 프라이빗뱅크 등의 자산관리사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향후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인공지능이 이런 일을 모두 맡게 될 것이다.

기자들도 인공지능을 피해갈 수 없다. 정형화된 기사는 속도와 정확성에서 이들을 당해낼 수 없다. 물론 탐사보도, 논평, 창의적 칼럼을 쓰는 기자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으나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이들 전문 기자도 곧 따라잡을 것이다.

판사와 변호사 영역도 인공지능이 파괴되고 있다. 각종 판례를 연구하고 법 조항에 의거 판단하는 판사의 일은 아주 고차원적인 인간의 영역에 속하지만 지금도 판례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속도감 있게 가능하고 머지않아 판사석, 검사석, 변호사석에 인공지능이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인간은 이들 인공지능과 타협, 협업해야 할 것이다.

그럼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이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자리를 빼앗긴 미래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거대 자본을 지닌 소수의 자본가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해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인간들의 일자리 소외를 부채질할 것이고 이는 앞서 말한 일자리의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반면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로봇세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인류는 일에서 해방되고 남은 시간은 이제 자기성취와 여가활동에 쏟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로마 시대의 노예를 거느린 귀족이나 시민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노예를 거느린 향유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토피아이다. 어떤 길을 갈지는 지혜로운 인간이 판단할 일이다.

참고: 선대인 작『일의 미래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김민호 기자